

한국 인문사회분야 학술커먼즈의 과제 학술커먼즈로서의 ‘새로운’ 학술공동체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박서현

1. 인문사회분야 학술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새로운’ 학술공동체

오늘날 특히 인문사회분야 학계의 문제를 예컨대 정규직·비정규직 교수·연구자의 위계, 비정규직 교수·연구자·대학원생의 재생산의 위기, 대학원생의 그림자 노동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오늘날 논문 등의 학술지식 생산의 문제도 인문사회분야 학계의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사회분야 학계에서 진지하고 투철한, 우수한 학술지식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학계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양적 평가 기준에 따라 논문이 양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생각해볼 것은 이러한 경향이 학술지식을 생산하는 주체, 연구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 양적 평가 기준에 따라 우수한 연구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잣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연구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된 것이다. 물론 임용·승진·연구비 등이 이러한 잣대를 충족시키는 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구자가 저 경향에 영향을 받지 않기는 쉽지 않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학술지식 생산의 문제가 결국 오늘날 인문사회분야 학계에서 학술지식을 생산하는 연구자의 문제, 주체의 문제와 응당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한다면 학술지식 생산의 문제는 이 주체가 저 학계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 주체, 인문사회분야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를 포함한 대학·학회·연구재단 등으로 이루어진 인문사회분야 학계 혹은 학술생태계 안에서 생산된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생산이라는 문제는 학술생태계의 문제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생산과 관련하여 학술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학회 같은 학술공동체, 특히 전통적 학회 이외에도 예컨대 공통주의 연구모임, 다중지성의 정원, 대안연구공동체, 말과활아카데미, 문화사회연구소, 생태적지혜연구소, 수유너머104,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공간 L, 연구자의집, 인문학협동조합, 필로버스, 현대정치철학연구회 그리고 오늘 심포지엄을 주최한 지식공유연대 등의 학술공동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¹⁾

이러한 학술공동체는 보통 같은 전공의 연구자들이 모여 공통의 관심사에 입각한 연구 성과를 교류함으로써 연구를 더 확대·심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전통적 학회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저 학술공동체는 각각의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학회와 마찬가지로 연구 교류를 포함한 공통의 활동을 통해 공통의 문제의식을 심화하고 이러한 심화된 문제의식을 경우에 따라 강연·발표·출판 활동 등을 통해 표현하여 확산한다. 이러한 ‘새로운’ 학술공동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²⁾

1) 마포·신촌 지역에 공간이 있는 학술공동체들에 대해서는 “[마포지식공유 공간](#)” 참조.

2)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학술공동체들은 분명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새로운’은 그저 이 학술공동체들이 전통적 학회와는 다른 면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것일 뿐이다.

2. 학술커먼즈로서의 새로운 학술공동체

커먼즈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그중에는 커먼즈를 첫째 물질적 세계의 공통의 부라고 할 수 있을 공기, 물, 땅의 결실을 비롯한 자연이 주는 모든 것과 둘째 지식·정보·데이터·이미지·언어·코드 등과 같은 사회적 생산의 결과물 중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차후의 생산에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있다.³⁾ 물론 새로운 학술공동체가 지식·정보·데이터 등의 비물질적 생산물, 생산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저 학술공동체는 그 자체 연구 교류를 포함한 공통의 활동, 사회적 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것일 뿐 아니라 향후 학술지식 생산의 토대가 된다는 점, 차후의 학술지식 생산에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학술커먼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학술커먼즈로서의 새로운 학술공동체가 공통의 활동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원, 연구자를 어떠한 문제의식, 시각을 견지한 주체로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물론 전체 인문사회분야 연구자의 일부, 즉 소수의 인문사회분야 연구자가 이 학술공동체에 참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라고 하더라도 이 일부 역시 분명 전체의 엄연한 일부라는 것은 분명하다. 대학의 인문사회분야 대학원과 굳이 규모를 비교한다면 저 학술공동체는 대학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학술공동체는 향후 어떤 시각을 견지한 연구자, 학술지식 생산의 주체를 생산하는 곳, 혹은 오히려 이러한 주체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른 성원들과 함께 연구 교류 등의 활동을 통해 어떤 시각을 견지한 연구자로 자기 자신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인문사회분야 대학원과 ‘함께’ 그리고 이 대학원의 ‘밖에서’ 연구자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3. 학술지식 생산에 있어 학술공동체의 역할

물론 새로운 학술공동체가 대학원과 상호 배제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학술공동체의 성원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학술공동체와 대학원은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연구자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보완적 성격을 가진다고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학술공동체에서의 연구 교류 등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학술지식은 미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분명 기존의 지식에 새로운 무엇을 더하는 것이다. 물론 저 학술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교류를 바탕으로 생산된 지식만이 기존 지식에 새로운 무엇을 더하는 학술지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새로이 생산되는 대부분의 학술지식이 기존 지식에 새로운 무엇을 더함으로써 기존 지식을 확장하고 심화하는 측면을 가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새로이 생산되는 학술지식의 이러한 측면은 직접적 공동 작업 이외에도 그것이 동료 평가 등의 연구 협력을 통해 협력적으로 생산된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사실 동료 평가의 본령은 새로운 지식 생산에 대한 학문 공동체의 기여에, 즉 유사한 관심을 가지는 동료연구자가 생산된 지식이 학문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3)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공통체: 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정남영·윤영광 옮김, 사월의책, 2014, 16-17쪽 참조. 물론 네그리와 하트는 커먼즈라는 용어가 사적 소유의 도래로 인하여 파괴된(공유지 같은) 전 자본주의적 공유 공간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커먼즈보다는 ‘공통적인 것’(the comm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말한다(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다중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의 전쟁과 민주주의』, 조정환·정남영·서창현 옮김, 세종서적, 2008, 20쪽 참조). 하지만 예컨대 커먼즈와 공통적인 것 모두 국가와 같은 ‘공적인 것’(the public)이나 자본과 같은 ‘사적인 것’(the private)이 아닌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네그리와 하트의 이해는 커먼즈-공통적인 것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 중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커먼즈-공통적인 것을 모두 커먼즈로 표기하고자 한다.

사항을 제안하며 이를 반영함으로써 지식이 공동체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이 생산되는 학술지식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존의 지식에 새로운 무엇을 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학술공동체에서의 연구 교류 등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학술지식만이 아니라 새로이 생산되는 학술지식 일반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저 학술공동체의 성원이 다양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소위 학문후속세대라 불리는,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신진 연구자가 그 성원의 중요한 일부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인문사회분야 전체 학술지식의 분명한 일부인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며 이를 통해 기존 지식에 새로운 무엇을 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더함은 전체 지식에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변화가 상대적으로 젊은,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교류에서 비롯하는 것이라는 점을, 그리고 이러한 연구 교류의 주체인 신진 연구자가 저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긍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러한 역량에 대한 긍정이 가지는 의미는 연구 교류 등을 통해 어떤 지식을 생산함으로써 전체 지식에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변화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개입하여 학술지식을 생산하는 주체로서 작다면 작지만 동시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새로운 학술공동체에서 활동하지 않더라도 사실 인문사회분야의 모든 신진 연구자들이 원리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저 학술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교류 등의 활동을 통해 공통의 문제의식을 심화함으로써 여러 신진 연구자들이 따로 또 같이 생산하는 지식들은 저 변화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깊고 넓게 만들 수 있다.

사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활동의 결과가 단순히 학술지식의 생산만이 아닌 공통의 문제의식, 즉 각자가 서로 다름에도 얼마든지 교류하면서 함께 심화시킬 수 있는 어떤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연구자 주체의 생산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이러한 주체를 생산하는 장으로서의 새로운 학술공동체가 어떤 힘을 가진다면 그 힘은 다름이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원들의 연구 교류 등의 활동에서 비롯되는 것 혹은 공통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연구자 주체가 결집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일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결집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공통의 활동이 문제의식을 심화하는 동시에 이러한 심화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학술지식 생산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학술커먼즈로서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필요가 다름 아닌 여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확인했듯 새로운 학술공동체가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공동체의 존재와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는 기 존재하는 학술공동체에 결합할 수도 있으며, 그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연구자들이 결집하여 공동체를 새로이 만들 수도 있다. 공간이 있을 경우에 공간의 유지와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공동체가 공간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특정 지역 연구자들이 결집할 수도 있지만 이 공동체는 장소에 크게 구애를 받는 것도 아니다. 장소가 아니라 공통의 문제의식을 심화·확대하기 위한 연구 교류 등의 활동의 필요가 저 공동체를 만드는 주된 이유일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한다면 이러한 활동의 필요와 일종의 열정이 저와 같은 공동체를 만드는 주된 이유가 될 것이다.

물론 무슨 거창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저 다른 연구자와 교류하면서 함께 심화할 수 있는 공통의 고민,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교류를 통해 공통의 고민, 관심을 심화할 필요를 느끼는 동시에 이러한 교류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고민, 관심을 공유하는

연구자들이 결집하여 얼마든지 새로운 학술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결집하여 연구 교류 등의 활동을 통해 학술지식을 생산하는 주체로서 전체 지식에 미약할지언정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연구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예컨대 기존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다루어졌더라도 기존 연구와는 다소 다른 시각에서 대상을 조망하여 이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대상의 의미를 드러내어 기존 지식에 새로운 무엇을 더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기존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것은 사실 연구 자체의 중요한 의미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하여 가능해지는 연구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봄, 감각이 중요하며 이러한 새로운 이해의 여지, 가능성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연구 교류 등의 활동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함께 심화·확대하는 학술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연구 협력, 사회적 생산의 결과이자 차후의 생산에 필요한 수단인 ‘지식’ 역시 학술공동체와 마찬가지로 학술커먼즈임을 상기한다면, 결국 학술커먼즈의 과제는 연구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학술지식’을 생산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생산의 가능성을 키워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새로운 ‘학술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학술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학술공동체의 기여

사실 이러한 학술공동체가 반드시 전통적 학회 밖에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존 학회 안에서도 예컨대 고민, 관심을 공유하고 이를 심화·확대할 필요를 느끼는 신진 연구자들이 소규모 학술공동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술공동체는 학회 성원들이 혹은 특정 학회를 넘어 대체로는 전공이 같은 (혹은 전공이 다르더라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연구자들이 학회 차원의 인준 같은 절차 없이 이미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학회 안에 혹은 학회를 가로질러 소규모 학술공동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소규모 학술공동체보다는 대체로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가 모여 연구 교류를 포함한 공통의 활동을 통해 공통의 문제의식을 심화시키는 앞서 언급한 새로운 학술공동체에 주목하기로 하자.

사실 이러한 학술공동체와 학회 안에서 혹은 학회를 가로질러 존재하며 대체로는 전공이 같은 연구자로 이루어져 있는 소규모 학술공동체의 핵심적 차이가 후자와 달리 전자에는 대체로 전공이 다양한 연구자가 모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향적으로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으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차이는 오히려 후자와 달리 전자의 학술공동체가 연구자의 학술적 고민, 관심 이외에도 전술했던 인문사회분야 학술생태계의 문제에 공감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그에 대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자의 학술공동체, 새로운 학술공동체 사이에도 학술생태계의 문제에 대한 공감과 비판적 이해,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의 모색에 있어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즉 어떤 학술공동체는 이것이 그 결성의 핵심적 이유일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학술공동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지언정 그보다는 어떤 다른 과제와 그것의 해결이 그 결성의 보다 더 중요한 이유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저 학술생태계의 문제가 이들 학술공동체들이 결성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분명한 것은 명시적 혹은 비명시적으로 학술생태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것의 변화를 추구하더라도 이러한 변화를 실제로 이루어내는 것은 진정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학술생태계의 문제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새로운 학술공동체들 이외에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크든 작든 저 생태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공동체들이 향후 얼마든지 추가로 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의 재생산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연구자의 재생산의 문제를 포함한 학술생태계 일반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의 변화를 추구하는 학술공동체가 결성되는 것은 무척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역으로 바로 저러한 현실이 새로운 학술공동체가 향후에도 얼마든지 결성될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구자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향후 추가로 결성될 수도 있을 이 공동체들에 결집하여 연구 교류를 포함한 공통의 활동을 통해 학술생태계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실천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분명 가지고 있다. 연구자의 재생산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 연구자가 가지는 위와 같은 역량의 실현을 가로막는 어떤 제한이 된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제한이 연구자가 저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어떤 한계와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 연구자에게는 저와 같은 역량이 있다는 점, 설령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학술생태계의 실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학술공동체를 결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술공동체가 학술생태계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실천이 학술생태계 전체를 일거에 변화시키지는 못할지언정 이러한 실천은 학술생태계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 실천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로서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학술생태계의 변화를, 설령 아주 작은 것일지언정,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학술생태계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이 아닌 우리가 함께 변화시켜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연구자는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역량을 모두 가지고 있다. 반복하건대 연구자의 재생산의 위기와 같은 현실이 이러한 역량의 실현을 가로막는 제한이 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제한이 연구자에게 저 역량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어떤 한계와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5. 연구자들의 집단적 실천을 위한 새로운 학술공동체의 활동

물론 이러한 진단에 일말의 타당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사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는 연구자가 결집하여 그 실현의 토대가 되는, 연구 교류를 포함한 공통의 활동을 전개할 때에만 비로소 저 역량의 실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달리 말해 저 역량의 실현은 그것이 학술공동체를 구성하는 성원의 '집단적 실천'이 될 때에만 비로소 그 실현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현은 학술생태계에서 이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기준에 맞춰 지식 생산 활동을 수행해온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우리 자신의 자기 변화의 의미 또한 일정 부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해 저 역량의 실현은 한편에서는 학술생태계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학술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것의 영향 하에 학술지식을 생산해온 우리 자신의 자기 변화의 의미 또한 일정 부분 가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학술공동체가 미약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새로운 연구자 주체성을 생산하는 장소라는 의미도 가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학술공동체를 만들거나 기 존재하는 공동체에 결합하여 활동하는 것은 학술생태계의 문제에 공감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그것에 대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온 학술생태계를 우리 스스로 변화시

키는 동시에 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일정 부분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기 존재하는 학술공동체는 오늘날 학술생태계의 문제에 공감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다수의 연구자가 단순히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을 넘어 이들과 어떻게 다종다양한 공통의 활동을 함께 전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이러한 활동을 실제로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 존재하는 학술공동체는 예컨대 최근에 연구자의집이 진행한 [‘마포신촌지역 네트워크 행사’](#) 등의 활동에서처럼 서로 연대하여 각각의 차이와 공통성을 확인하고 이에 입각하여 공통의 활동을 확장·심화시킬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한편에서는 연구재단이나 교육부의 학술정책에 대해 비판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 협력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술커먼즈로서의 새로운 학술공동체가 학술생태계의 변화를 위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나아가 설령 아주 작은 것일지언정 저 변화를 실제로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또 공동체 사이의 연대와 연구재단·교육부 같은 국가기관의 학술정책에 대한 비판과 협력을 통해 저 변화의 가능성을 키워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